

# 광양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고통 분담 나서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최대 80% 감면

### 1년간 총 54필지 4억 4천여만 원 수혜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11월 2일 광양시 공유

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지원은 지난 1월~오는 12월의 사용·대부료율을 기존 4~5%에서 1%로 감경하고,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경작용 공유재산과 일반 대부율의 절반 수준인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효과는 1월 1일~12월 31일(1년간)의 임대료 총 54필지 4억 4천여만 원으로 예상되며, 시는 지난해 2~12월 대부료 3억 8천여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시는 이달부터 대상자에게 감경사실을 안내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경영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감면 취지를 밝혔다.

광양=심승섭기자

## 순천시-순천문화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위해 함께 협력키로

### 공연장·전시실 사용료 할인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원장 조옥현)은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순천시는 순천문화원 활성화를 통해 순천시민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바로 알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행사,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허석 순천시장의 12년만에 순천문화원장 취임식에 자리를 함께 모처럼 지역의 문화예술포럼 인사들이 모여 순천문화원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새로 취임한 조옥현 원장은 고장에 문헌향토적 가치를 발굴·보존하는 데 순천문화원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문화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화원 건물을 연차적으로 문화예술 단체 등 공공단체에 임대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연장(288석)은 50% 할인하며, 1층 전시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공연장·전시실 대관 예약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문화원(061-742-1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힘쓰겠다"면서 "순천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관심 갖고 적극 응원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문화원은 역사문화 유적 인문학강좌, 실버스토리텔링 등 역사문화알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알찬 내용과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제작하여 시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 공간 향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김승호기자



## 여수시, 타 지역민 거문도 여객선비 50% 지원

###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섬 관광 활성화 기대

여수시가 올해도 관광비수기를 이용해 여수-거문도를 이용하는 타 지역민에게 여객선비의 50%를 할인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여객선비의 50%를 할인 지원하며, 여수시가 40%, 여객선사가 10%를 부담한다.

관광성수기에는 타 지역민이 여수-거문도를 이용해 거문도를 왕복할 경우 72,2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비수기에 이용하면 왕복 36,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여수-거문도를 이용하는 타 지역민은 여객선비의 반값 할인을 받고 순죽도, 조도, 거문도

등 관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단 녹동-거문도로 이용 시 여객선 운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수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관광비수기 지속적인 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민 거문도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매년 1개월씩 연장에 시행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섬 지역 유일한 해상교통인 여객선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면서, "거문도의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섬이 주는 위안 속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왕실도자, 색을 입히다' 개막식 성료

### 분청사기·왕실도자의 비교전시 기획 돋보여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 26일 14시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열리는 '왕실도자, 색을 입히다 - 분청사기'와 왕실도자 특별교류전의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식은 김인규 국립고궁박물관장, 김연수 국립해양문화재연구

소장 등 50여명의 내·외빈 관람객이 참석하는 가운데 코로나 19를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됐다.

송귀근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특별교류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도자문화의 메카, 고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송영현 군의

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공중문화축전에서 '차 향기 가득한 궁' 선포

### 보성 녹차 전국에 집중 홍보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군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경복궁에서 열린 '2021년 제 7회 공중문화축전' 가을에 참가해 그윽한 차향기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보성군은 경복궁 내 수정전에 보성의 차 나무 400주를 이용해 미니 계단식 차밭을 만들어 홍보관을 조성했으며, '차 향기 가득한 궁'이라는 주제로 보성차문화와 역사를 알렸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고려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던 최고의 명차인 뇌원차를 복원하여 전시하였으며, 청자다완과 더불어 보성 차 명인이 만든 우수



한 차 등 다양한 차 연관제품을 함께 전시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또한, 내년 4월 15일부터 4월 21일

까지 7일간 국제행사 규모로 열리는 보성세계차엑스포 홍보도 병행했다. 기동취재본부

## 여수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무등록·소음 단속

여수시가 지난 25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과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법규 위반 이륜차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5일 저녁 국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등 2개소에서 불법구조변경 등 이륜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구조변경 등 36건, 무등록 등 11건으로 총 47

건을 적발했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손잡고 지난 7월부터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여수=오상호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